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뉴욕의 모든 고용주에게 좌석, 수돗물 및 전기, 작업 공간을 포함한 편리하고 사적인 펌프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4844-B/A.1236-A)

또한 고용주에게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할 때 직원의 권리에 관한 서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직장 내 모유 수유 시설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4844-B/A.1236-A)은 뉴욕의 모든 고용주에게 모유 수유 공간이 편리하고 사적인 공간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좌석, 수돗물 및 전기에 대한 접근 및 작업 공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고용주들이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할 때 직원의 권리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주 전역의 모든 직원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기본적인 숙박 시설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유 중인 산모들은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공간에 접근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에게 양질의 숙박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원들이 모유 수유를 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법안(S.4844-B/A.1236-A)은 뉴욕의 모든 고용주에게 좌석, 수돗물 및 전기에 대한 접근, 작업 공간을 포함하여 작업장에 편리하고 사적인 모유 수유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주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기준은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모유 수유를 위한 숙박 시설을 확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전역의 모든 직장이 안전하고 깨끗한 모유 수유 공간을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고용주들이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할 때 직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뉴욕주 노동부가 개발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시와 그 후

매년 각 직원에게 서면 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아이가 태어난 후 직장에 복귀하는 직원에게도 서면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Alessandra Biaggi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아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근무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료 보호와 숙박 시설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님께서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개인 수유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 법안인 S4844B에 서명해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아이를 돌보고 업무를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뉴욕 전역의 직장들이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고 공평하도록 계속해서 보장해야 합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유 수유의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직장에서는 사적이고 청결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여 모유 수유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물을 이용하고 콘센트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여성의 모유 수유 능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작성해야 하고, 여성들이 모유 수유권이나 적절한 시설을 요구하는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